

「興夫傳」新釋

곽 정 식*

目 次

- | | |
|----------------------------|-------------------|
| 1. 서 론 | 3-1. 놀부의 삶과 소유 양식 |
| 2. 선행 연구의 검토와
문제 제기 | 3-2. 흥부의 삶과 존재 양식 |
| 3. 기본적인 삶의 두 양식
-소유와 존재 | 4. 제비 황제의 기능적 의미 |
| | 5. 결 론 |

1. 서 론

흔히 소설의 유일한 존재 이유가 인생을 재현하려는 데 있다고 하거니와, 작가나 독자나 소설에서의 흥미는 인물에의 관심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동안의 우리 소설사는 다양한 인물의 창조와 그 典型化에 더러 성공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박진감 있게 형상화된 구두쇠형 인물이 바로 「흥부전」의 ‘놀부’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같은 사실은 「흥부전」 연구에 있어 일종의 方向性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물론 인물이란 소설의 한 구성 요소로서 그에 대한 이해가 작품의 문학적 총체성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특히 「흥부전」의

* 경성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경우, 인물의 대립적 성격이 뚜렷한데다가 사건 전개는 물론 전체적 의미까지도 인물의 대립적 형상과 밀접한 관련을 보여주고 있어 인물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홍부전」 연구는 무엇보다도 홍부와 놀부라는 두 중심인물에 대한 이해가 그 핵심을 이룬다고 하겠으며, 이 때문에 연구의도를 보다 단순화하고 단일화해서 인물을 집중적으로 살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이에 본고는 「홍부전」의 이원적이고 대립적인 인물 구조의 성격은 무엇이며, 또 이를 통해 표출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는 것이다. 다만 독자와의 관계에서 보다 일반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京板本(20張)을 대상으로 한 까닭에 여기서 얻어진 결과가 他本에 관해서도 두루 타당한지는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할 과제이다.

2. 선행 연구의 검토와 문제 제기

그동안 「홍부전」 연구는 복합적이고 다원적인 연구의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홍부와 놀부의 두 중심인물을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해야 할 것인지가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되어 왔다.¹⁾ 그러면 주요 선행 연구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김태준은 「홍부전」 연구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언급한 바 있다.

……착한 興夫의 繁榮과 惡한 놀부의 沒落은 더욱 讀者를 痛快히 하며 經濟의 衝突은 世紀末의 倫理思想을 表現하였으며……²⁾

이는 가정 윤리적 측면에서의 접근으로 홍부와 놀부를 각각 선과 악의

-
- 1) 李相澤, 홍부 놀부의 人物評價, 張德順의 共著, 韓國文學史의 爭點, 集文堂, 1986, pp. 540-549, 柳光秀, 「홍부전」 研究史와 檢討, 어문논집 27집, 고려대 국문학연구회, 1987, pp. 279-300, 呂運弼, 「홍부전」 연구의 주요쟁점, 睡蓮語文論集 제17집, 부산여대 국어교육과, 1990, pp. 99-122 등 참조.
 - 2) 金台俊, 增補朝鮮小說史, 學藝社, 1939, p. 134.

표상으로 보고, 「홍부전」이 물질 혹은 경제 문제를 둘러싸고 생겨난 대립과 갈등을 통해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같은 견해는 일찌기 李裕元이 嘉梧樂府의 觀劇詩, 燕子瓠 第二令에서 ‘江南社雨燕飛來 瓠子如嬰萬物胎 一富一貧元有定 難兄難弟莫相猜’라고 하였다거나, 또 鄭顯奭이 教坊諸譜 倡歌條에서 ‘匏打令 兄賢弟頑 此勸友也’라고 했던 데서도 잘 드러나 있는 것이지만 그동안 주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李明善은 다만 홍부에 대해서 그 신분을 몰락양반으로 규정하는 한편 비생산적이며 무기력한 인물³⁾로 평가하였고, 高晶玉은 홍부와 놀부가 같은 양반의 후예로서 봉건말기 양반층의 두 갈래⁴⁾라고 하였다. 장덕순도 「홍부전」이 불교적인 설화를 가지고 이조적 윤리사상인 형제간의 우애를 목적으로 하는 권선징악의 理를 밝혔다⁵⁾고 하고, 그들의 신분을 같은 양반으로 보았다.⁶⁾ 또 李文奎는 문학내적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홍부는 유교적 이념 세계와 질서에 부합되도록 정상화되어 있는 선한 인물이며, 놀부는 경제적 이익만을 집요하게 추구하여 당시의 보편적 가치인 유교적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철저한 악인이라 하면서, 그 주제를 ‘기존 가치관이 새로운 가치관의 대립을 통하여 기존 가치관이 승리해야 한다는 민중의 소망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규정하였다.⁷⁾ 이 밖에도 趙春鎬는 「홍부전」이 善惡兄弟譚을 중심 소재로 형제갈등을 통해 어떤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서도 분리될 수 없는 형제 우애를 강조한 작품이라⁸⁾고 하였고, 임성래 또한 판소리의 서사구조를 일원적인 구조로 파악할 때, 홍부전의 주제는 결국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⁹⁾고 하였다.

3) 李明善, 朝鮮古典文學讀本, 宣文出版社, 1947, pp. 118-120.

4) 高晶玉, 國語國文學要講, 大學出版部, 1949, pp. 118-120.

5) 張德順, 興夫傳의 再考, 국어국문학, 제13호, 국어국문학회, 1955, p. 46.

6) 앞의 책, p. 51.

7) 李文奎, 興夫傳의 文學的 特質에 對한 考察, 先淸語文 11-12합병호, 서울대사대국어교육과, 1981.

8) 趙春鎬, 형제갈등을 중심으로 본 「홍부전」, 문학과 언어, 10집, 문학과 언어 연구회, 1989.

9) 임성래, 판소리의 서사구조에 대한 단견 -홍부전을 중심으로-, 남도문화연구, 3집, 순천대학 남도문화연구소, 1991.

4 韓國文學論叢 第13輯

그러나 이와 같이 「홍부전」을 다만 전통적 유교 이념인 가정윤리적 우애론의 측면에서 교훈적 목적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데는 그 한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 판소리는 기존의 중세적 이념이나 가치관을 거듭 주창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창안된 장르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판소리는 선형적이거나 또는 윤리적인 당위에 입각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실제 생활을 경험을 통해 인식하고, 이에 입각해 보다 합리적인 가치를 추구하자는 태도에서 생겨난 장르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판소리가 민중의 현실에 입각한 경험적인 사고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은 판소리의 流動性에 의한 그 어떤 변이에도 불구하고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지향성이자 명제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李裕元과 鄭顯爽이 지적한 내용은 근원설화와 관련된 소재적 성격이거나, 아니면 판소리가 양반 지배층의 애호를 받아 계층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서 제기된 것으로서, 판소리의 유동성 측면에서 다만 그 일면적 의의를 인정할 수는 있겠으나 작품의 지배적 성격은 아니라고 본다.

이와 같이 중세적 유교윤리의 善惡 개념은 이미 시대적 감각에 잘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보다 중요한 문제점으로 실제 작품에서 인물의 구체적 행동이나 또는 묘사된 내용에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도 않으며,¹⁰⁾ 중심인물을 형제 관계로 설정하고 善惡을 극대화시키려고 한 작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형제간의 갈등이나 선악의 형상이 극히 부분적이고 빈약하다는 점, 또 報讐朴에 의한 늘부의 패배가 사실은 형제우애와 같은 윤리문제와는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다. 관점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선의 인물로 인식되고 있는 홍부에게서도 부정적인 요소를 찾을 수 있고, 반대로 악의 인물로 이해되는 늘부에게서도 또한 긍정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사실이 그렇다면 작품 표면에 내세워진 윤리도덕적인 粉飾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전체적 내용을 윤리도덕적인 선악의 개념만으로는 충실히 수렴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홍부전」이 권선징악의 교훈적

10) 홍부와 늘부에 대한 인물 평가가 논자에 따라 서로 엇갈리고 있는 주요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목적울 수행한다는 종래의 통념은 피상적인 관찰이며, 결국 작품 전면에 반영된 강렬한 일련의 사회현상을 도외시한 결과라 하겠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 이념이라 할 수 있는 중세적 선악 개념만으로는 판소리에서의 변화된 이념이나 다양한 생활 모습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분명한 한계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놀부의 패배는 단순히 흥부에 대한 惡行의 결과로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놀부 자신의 물질에 대한 탐욕이 차조한 결과였다는 사실은 가정윤리적 측면에서의 이해가 지닌 한계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흥부전」에서 선악의 대립이나 형제간의 갈등은 그다지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¹¹⁾

이와 함께 60년대 말로 접어들면서, 사회 경제사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으로 흥부와 놀부의 신분 및 그들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관심이 연구사적으로 보아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먼저 趙東一은 흥부와 놀부가 같은 형제이면서도 그 사회적 신분은 각각 몰락양반과 賤富의 표상으로 서로 상반된 신분양상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면서, 그것이 판소리 양식의 구조적 특징인 부분의 독자성 원리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흥부와 놀부 사이의 갈등을 舊秩序와 新秩序 사이의 그것으로 보고, 흥부의 인간상에서 연역된다고 하는 ‘도덕률’, 특히 ‘유교도덕률을 대변하는 것’이 표면적 주제인데 대해, 놀부의 인간상에서 연역되는 ‘賤富의 대두로 가난해진 양반과 모든 기존관념이 얼마나 심각한 곤경에 빠지게 되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이면적 주제라고 하여, 이면적 주제를 통해 보다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그리고 「흥부전」의 사회사적 의미를 화폐경제의 발달, 賤富의 대두와 물질적 가치관의 성행 등에서 파악하였다.¹²⁾ 요컨대 그는 「흥부전」이 품팔이꾼으로 전락했면서도 양반의식을 버리지 않는 흥부와, 부지런하고 무자비하게 일해서 재산을 모으면서 양반의식뿐만 아니라 전래적인 도덕률을 아주 거부해버리는 놀부의 대결을 통해서 낡은 관념과 새로운 생활 사이의

11) 徐大錫, 興夫傳의 民譯的 考察, 국어국문학 67호, 국어국문학회, 1975, pp. 18-19 참조.

12) 조동일, 興夫傳의 兩面性, 李相澤 成賢慶 共編, 韓國古典小說研究, 새문社, 1983, pp. 490-553.

갈등을 나타낸다고 하여, 흥부를 긍정적으로, 놀부를 부정적으로 보아온 통념을 깨고, 새로 신봉하는 질서의 표상으로서 놀부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능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林燮澤은 흥부와 놀부의 신분관계를 서민층에서의 양면성을 반영한다고 보고, 흥부는 '小作의 기회마저 얻지 못하고 모든 생산수단을 상실하여 품팔이꾼으로 전락한 貧農'인 반면에, 놀부는 '상승된 經營型 庶民 富農의 한 반영'으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흥부전」의 주제의식을 조선조 후기 농촌 사회가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로 이행됨에 따라 제기된 모순과 逆理現象에서 찾고자 하였으며, 특히 흥부라는 인물이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굶주려야 되는 반면에, 놀부라는 인물은 악질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부자로 잘 살고 있는 '현실의 모순'을 통해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제기한다¹³⁾고 결론지었다.

한편 李相澤은 이 무렵의 심화된 사회 변동을 고려해서 보다 의미있는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歸屬身分이 아니고 각자가 스스로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확보한 獲得身分이라고 보아, 富의 축적에 성공한 놀부를 특권의 收奪階層으로, 품팔이꾼으로 영락한 흥부를 하층의 被奪階層으로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흥부전」의 역사적 함의가 일차적으로는 반도덕적인 收奪階層과 도덕적인 被奪階層 사이의 갈등에서 찾아져야 한다고 하고, 그 주제는 被奪階層의 收奪階層에 대한 敵對意識과 富에 대한 熱望의 極大化現象을 具現하려 한 것이라 정리될 수 있겠다¹⁴⁾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회 경제사적인 접근을 통해 확실히 「흥부전」 연구가 크게 진전을 거두었다고 하겠는데, 그것은 곧 화폐경제의 발달, 전통적 윤리의식의 동요와 물질적 가치관의 성행 등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로의 이행기라 할 수 있는 조선조 후기사회의 역동적인 사회변동 양상에 대한 이해로부터 「흥부전」의 문맥파악이 보다 구체적이고 깊이있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3) 林燮澤, 흥부전의 現實性에 關한 研究, 李相澤 徐大錫 成賢慶 共編, 韓國古典小說, 啓明大學校出版部, 1974.

14) 李相澤, 古典小說의 社會와 人間, 李相澤 徐大錫 成賢慶 共編, 韓國古典小說, 啓明大學校出版部, 1974.

그러나 이것 또한 몇 가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을 지닌다.

조동일이 판소리 양식의 구조적 특징인 부분의 독자성 원리에 기초해서, 흥부와 놀부를 몰락양반과 賤富라는 서로 상이한 신분계층으로 파악하고, 賤富의 대두로 인해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된 양반과 기존관념을 ‘이면적 주제’¹⁵⁾라 하여 결국 사회 변동에 따른 신분 및 신분과 결부된 의식(가치관) 사이의 갈등을 지적하면서, 놀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데 대해, 임형택은 작품 구조가 일정한 통일 원리에서 농민층 내부의 貧富 관계에서 야기된 문제로 파악하고, 또 놀부를 철저하게 반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인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상택은 사회적 변동에 따른 신분관계에서의 혼란을 의식해서 귀속신분을 획득신분으로 대체하고, 貧富 관계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새로운 계층적 신분 갈등으로 파악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작품 자체의 문맥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명제를 생각할 때, 우선 흥부의 신분이 양반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데다가, 형제 관계로 설정되어 있는 흥부와 놀부를 서로 상이한 신분계층-귀속신분이든 획득신분이든-의 반영으로 파악하여, 주제의식을 상하 계층 사이의 갈등에서 찾는 것은 원래 수평개념인 형제 관계의 본의를 고려한다면, 거의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몰락양반과 賤富의 대립이라면, 몰락양반을 칭송하고 賤富를 혐오하는 것이 평민의식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되어 시대적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¹⁶⁾ 또 놀부가 報讐朴을 통해 거의 죽음에 상응하는 패배를 겪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추구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놀부식 사고와 행동을 새롭게 대두하는 新秩序로 보고, 이같은 이유로 인해 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전후 문맥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결과라고 본다. 이와는 반대로 조선조 후기사회가 이 익사회임을 강조하면서 공동사회적인 인간형인 흥부를 긍정적으로 보려하는 것도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또한 「흥부전」을 빈부의 갈등과 대결로 단순화

15) 조동일 교수 자신도 이미 ‘主題의 對立에서 보다 優勢하고 價値가 큰 것은 裏面的 主題’(葛藤에서 본 春香傳의 主題, 啓明論叢 제6집, 啓明大學, 1969)라 하여 이면적 주제를 작가의 궁극적 의도로, 또 표면적 주제를 부차적인 것으로 시사한 바 있다.

16) 徐大錫, 앞의 논문, p. 19 참조.

하려는 시각에도 위험성이 있다. 자칫 富者나 物質 자체를 죄악시하려는 의도가 개입됨으로써 당대 사회의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물질 추구의 일반적인 가치관의 변화를 수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흥부를 동정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가 가난하다는 데 있지 않은 것처럼 놀부를 비난하고 응징하는 이유도 그가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는 데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서대석이 적절하게 지적한 대로, 부자를 증오하고 품팔이꾼만을 동정한다는 것이 당시의 민중의식과 어떻게 결부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¹⁷⁾ 작품에서 사건 전개에 일관되게 작용하는 것은 현실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물질이다. 그리고 작품표면에서 내세워진 윤리도덕적인 문제는 흥부에게만 의미있는 것일 뿐, 놀부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흥부가 가난하다거나 놀부가 부자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며, 선악의 문제 또한 지니치게 하위범주에 속하는 개념이다. 그것은 놀부의 물질 지향성과 이와는 대조적이면서 윤리도덕적인 것을 포괄하는 흥부의 또다른 지향성이 빚어내는 문제라 하겠다. 요컨대 신분 문제와 빈부에 따른 갈등 역시 선악의 대립이나 형제간의 갈등과 마찬가지로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 밖에도 서대석은 「흥부전」이 민담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한 소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민담과 소설의 類同性和 差異點을 살펴, 먼저 「흥부전」의 인물은 혈통이나 신분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어서 이들을 두고 일정한 사회적 지위나 신분을 따진다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라고 하면서, 주제와 관련한 중심 갈등이 흥부 자신의 생존과 현실의 대결, 즉 生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생활에 대한 위협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특히 「食」을 위한 투쟁이 중심이 된다고 하였다. 또 놀부가 구두쇠 짓을 하면서 흥부를 구박한 행위는 생존을 위해서 생활에 필요한 재산을 확보하려는 의식에서였다고 하는 대신, 자기나 자기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흥부가 아니라도 누구나 하는 일기에 흥부가 다른 사람에 비하여 착한 것도 없고 착할 이유도 없다고 하여, 결국 중세적 윤리관에 따른 인물 이해를 배제하였다.¹⁸⁾ 그런데 이는 설득력 있는 접근 방법에도 불구하고 소설을 지니치게 민담적 원천에 이끌려 단순하고

17) 徐大錫, 앞의 논문, 같은 곳.

18) 徐大錫, 앞의 논문.

소박하게 이해한 것이 아닌가 한다. 특히 소설의 인물은 민담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매우 높아 모든 의식과 행동의 주체인데도 이를 순전히 도구적인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작품의 주제가 素材主義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주요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인물 이해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논자들의 관점과 견해에 따라 몇 가지 문제점 또는 한계가 지적되었으나, 앞으로의 연구에 그 나름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앞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흥부전」의 대립적 인물구조가 갖는 성격 및 그에 의해 표출하고자 하는 중심적 의미가 충분히 설득력을 지닐 수 있게, 보다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에서 논의하는 일이 될 것이다.

3. 기본적인 삶의 두 양식—소유와 존재¹⁹⁾

3-1. 놀부의 삶과 소유 양식

먼저 작품의 도입부가 ‘화설경송전라도지경의스는스름이잇스니놀부는형이오흥부논아이라’고 하였는데, 이때 “경송전라도지경”이라고 하는 소설적 공간 배경에 대해 그 나름대로 일정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곧 두 중심인물을 형제관계로 설정한 것과 함께 동시대적인 것의 양면성이나 이원적 대립성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러한 도입부의 공간적 의미는 두 중심인물의 세계와의 관계 혹은 지향성과 그에 따른 작자 개입을 통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작품의 발단부는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지향성, 곧 그들의 사고와 감정과 행위의 총체를 결정짓는 성격구조를 보여 주는데, 놀부는 무엇보다도 물질에의 편집증으로 성격화되는 인물이다.

19) 이에 대한 자세한 이해는 에리히 프롬(韓完相, 馬相助 共譯), 所有냐 存在냐(展望社, 1985)를 참고할 것.

부모싱전분전담을홀노초지학고홍부갓치어진동싱을구박하여전년손언덕
 및히너씨리고노가며조롱학고드러가며비양학니었지아니무지학리(1張 앞)

말하자면 그는 끝없이 물질을 추구하고 그것을 독점하려는 욕구만으로 삶을 살아가는 인물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그의 인생 목표에 배치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안중에 없다. 홍부에 대한 놀부의 구박 행위는 그같은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형제 관계가 그럴진대 이웃 사람에게 대한 태도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놀부심스불죽시면쇼승난티춤츄기불붓는 티부취질히산호티기담잡기중의가
 면억미홍정우는아회불기치기갓는아회똥먹이기무죄호눔뺨치기빗갑세계집뺨
 기늙은령감덜미잡기아회빈디비촉기우물밧힌똥누기오려논의물터노키초천밥
 의돌퍼붓기먹는곡식이숙끈키는두렁의구멍썰키호박의말뚝박기곱중이엄허노
 코발꿈치로탕탕촉기(1張 앞)

위에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놀부의 행위와 감정과 사고는 순전히 물질 중심이다. 아우와 이웃 등 세계에 대한 그의 관계는 소유하는 관계로 극히 단순화되어 있다. 불붓는데 부채질, 오려논에 물터놓기, 자친 밥에 돌퍼붓기, 패는 고식 이삭 자르기, 논두렁에 구멍썰기, 호박에 말뚝박기 등과 같이, 그에게는 사유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그리고 ‘빛값에 계집뺨기’에서 처럼 인격을 가진 사람도 물질로 계산해서 홍정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초상난데 춤추기, 해산한테 개담잡기, 우는 아이 불기치기, 갓난 아이 똥먹이기, 무죄한 놈 뺨치기, 늙은 영감 덜미잡기, 아이 뺨 계집 배차기, 곱사장이 없어놓고 발꿈치로 탕탕치기와 같이 인생의 목표는 오직 하나 재산과 이익을 중심으로 죽이고 빼앗아 私적으로 소유하는 것일 뿐, 세계와 진정으로 결합한다거나 살아 있는 것끼리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같은 놀부의 물질지향적 성격 구조는 바로 삶의 소유 양식을 뜻한다.

술이만이있다호덜너쥬조고노적힐며벼가만이있다호들너쥬조고섬울힐며돈
 이만이있다호들피록계의가득든거실문을열며가로되노있다호들고왕속독의가
 득너은거실독을열며의복이노쥬조호들집안이고로버서거덜너를었지쥬며춘밤
 이나쥬조호들기를꿈기며저저미노쥬조호들구중방우리안의솨기나은똥치누어
 시너너쥬조고똥꿈기며것섬이노쥬조호들큰농우가네필이너너쥬조고소꿈기라
 (3張 앞)

이와 같이 삶의 소유 양식은 주체와 객체를 물건으로 만들고 살아 있는 인간을 배제함으로써 그 관계가 죽은 관계이다. 그리고 그것의 궁극적인 행복은 정복하고 빼앗고 죽이기 위한 자신의 능력 가운데 있다.²⁰⁾ 프로이트에 의하면, 소유에의 지배적인 방향설정은 인간이 완전한 성숙에 도달하기 이전의 시기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소유하고 점유하는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은 신경증 환자이며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이라 하였다.²¹⁾ 따라서 놀부의 소유 양식은 명백히 부정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병리 현상에 다름 없다고 할 것이다.

3-2. 흥부의 삶과 존재 양식

위에서 놀부의 세계에 대한 관계가 소유하고 占有하는 관계이며, 자기 자신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사람, 모든 것을 사유재산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관계임을 살펴 보았다. 이에 대해 흥부의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흥부는 형에게서 쫓겨난 뒤 처음으로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 직면하여 ‘집’을 짓게 되는데,

집지목을니되수슈밧툼으로드러가셔슈슈티훈무설부여다가안방티청힐낭뎡
 칩두루지여말집을깍짓고도라보니슈슈티반무시그저남엇고나(1張 앞-1張
 뒤)

라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흥부 자신의 세계에 대한 관계, 즉 흥부의 삶의 양식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놀부의 그것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그 형상이 부족하나마²²⁾ 존재의 양식이라고 할 만하다. 다시 말해서 ‘집’이라고 하는 구체적 대상을 놓고 나타난 흥부의 사고와 감정과 행위는 그의 성격 구조, 즉 세계에 대한 일종의 지향성을 엿보게 하는 것이며,

20) 에리히 프롬, 앞의 책, p. 119

21) 에리히 프롬, 앞의 책, p. 122.

22) 이는 흥부와 관련해서 두드러진 것인데 그 까닭은 다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소유하는 일이 관계하는 것은 물건이며 물건은 고정되어 있어서 기술할 수가 있다. 존재하는 일이 관계하는 것은 경험이며 인간 경험은 원칙적으로 기술할 수가 없다.’ (p. 126), ‘소유의 구조에 있어서는 죽은 언어가 지배한다. 존재의 구조에 있어서는 살아있는 표현이 불가능한 경험이 지배한다.’ (에리히 프롬, 앞의 책, p. 128)

이를 유교윤리적 善惡개념에서 이해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흥부의 지향성은 다음과 같은 소유 양식과의 직접적인 대조를 통해 두 가지 기본적인 삶의 양식으로서 제시되고 있다.

집을지으라면집치목을너려하고고만첩청산드러가서소부동터부동을와드렁통
 텅버이다가안방터청힙낭뭉치니외분합물립퇴의살미술총가로다지입구즈로지
 은거시(1張 앞)

이로 볼 때, 흥부는 '집'에 대해 占有하는 관계에 있지 않으며, 따라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따라서 흥부의 가난은 그 자신의 성격 구조, 즉 지향성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가 집을 소유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는 수수대 한 묶음으로 집을 짓는데 그나마도 반 묶음의 수수대가 남았다고 하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흥부의 가난을 신분이나 선악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그가 놀부에게서 쫓겨난 것은 무엇보다도 두 사람의 대조적인 삶의 양식에 기인한다. 현실적으로 놀부의 소유 양식이 이른바 세속적 권위를 지니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흥부는 소유하고 지배하는 일에는 거리가 멀다.

방안이널던지마던지양쥐드러누어가지키면말은마당으로가고터고리는뽕
 겹트로가고영당은올타리밧그로나가니동니스몹이췌림ㅎ다가이웅당이불너
 드리소ㅎ는소리(1張 뒤)

위에서 한층 구체적으로 이해되는 흥부의 성격 구조 혹은 지향성을 미루어 볼 때, 놀부의 소유 양식이 지배적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 현실에서 흥부의 물질적 경제적 생활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이미 명백하다. 住居 문제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로서는 가족들과 함께 입고(衣) 먹고(食)하는 일에서 극도의 빈궁을 면할 대책이 없다.

입힐질이전혀업서호방안의모라너코명석으로쓰이고터강이만녀노오니호
 녀석이췌이마려오면뭇년씩이시비로쓰라간다(1張 뒤)

집안의먹을거시잇던지업던지소반의네발노호날기췌수호고술이목을미여달
 녀고조리가터거리를호고밤을지여먹으라면칙녀를보아갑주일이면호췌식먹고
 시양쥐가뽕알을어드라고밤낫열엇시를단니다가다라와가리토시나서파종호고
 알는소리의동니스몹이췌을뭇즈니(2張 앞)

이와 같이, 흥부에게 있어 衣食住의 문제는 놀부의 소유 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것일 수도 없거니와, 그가 크게 관심을 기울이는 일도 아니다. 삶의 존재 양식은 본래 사랑하는 일, 서로 나누어 가지는 일, 그리고 주는 일 가운데서 행복을 찾는 것으로서, 그같은 문제는 그의 지향성 밖에 있다.²³⁾ 형편이 이러한데도 그러나 흥부의 식구들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로서의 운동성을 보여주고 있음이 특징이다. 소유 양식의 놀부가 대단한 富者임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자식 등 가족과의 관계가 일방적인 지배와 종속의 죽은 관계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극대화된 빈곤 속에서 설흔이 넘는 흥부의 자식들은 ‘열고 2탕의국슈마라먹으면’, ‘병거지물의겨파프러먹으면’, ‘기장국의흰밥좀먹으면’, ‘티초시루석먹으면’ 하기도 하고, 또 ‘불두덩이가려우니놀 2가드려주오’하는가 하면, 아내 역시 생계를 꾸려 가는 과정에서 보는 것처럼 끊임없이 흥부의 사고과정을 자극한다.²⁴⁾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 최소한의 물질적 수요마저 충족시킬 수 없는 흥부는 결국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인물로 비쳐지게 마련이다. 다음에서 보는 그의 운명론을 통해, 우리는 놀부의 소유지향성이 강력하게 그 지배적 권위를 행사하는 현실세계에서 마침내 피해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흥부의 자기합리화를 볼 수 있다.

엇던스 통팔조와티광보국숙늑터부습티육경도어나서고티광실조흔집의부
귀공명누리면서호의호식지니는고……(1張 뒤)

이렇게 볼 때, 두 가지 기본적인 삶의 양식 가운데서 놀부에 의해 표상되는 소유 양식이 지배적 권위를 강력하게 행사하는 사회에서는 흥부에 의해 표상되는 존재 양식은 현실적으로 무력해질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²⁵⁾ 이

23) 작자는 이에 대해 ‘흥부마음인후혹여청산뉴슈의곤눈옥걸이라성덕을본받고악인을져어혹며물욕의탐이업고슈식의무심혹니모음이이러혹터부귀를발랄소냐’라고 하였다.(3張 뒤)

24) 존재 양식은 그 전제조건으로서 독립, 자유, 비판적 理性을 포함한다.(에리히 프롬, 앞의 책, p. 127)

25) 여기서 놀부가 부모유산을 모두 차지하기 위해 흥부를 내쫓았다거나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다거나 한 것을 생각하면, 놀부의 富는 자신의 성격구조와 지향성으로서의 삶의 양식(소유)에 따라 현실적으로 획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흥부는 결코 물질에 집착하지 않는 자신의 지향성, 곧 존재의 양식에서

때문에 흥부의 아내가 衣食住 문제의 해결에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이라 할 수 있다.

익고여복소부절업시청림마오안지단표주린염치습십조스호엿고뵈이숙제주
린염치청누소년우어시니부절업신청림말고저조식덜꿈겨죽이게시니아즈반네
집가서술이되나벼가되나어더음소(2張 앞-2張 뒤)

이와 같은 아내의 간청에 흥부는 ‘동량은못줄망정쪽박쫓츠췌칠손가마지
늑아니마즈나쏘호나분다고’ 놀부의 집으로 건너가게 되는데,²⁶⁾ 그는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놀부²⁷⁾와는 다른 태도, 즉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이고 반응하며 움직이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²⁸⁾

한편 놀부를 찾아가 흥부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물질을 요구했고, 그것도
그저 달라는 것이 아니었다.

세써꿈머누은조식늘너닐길견혀업스니뵈이나벼가되나양단간의주시면품을
판들못갑호머일를호들공홀손가부티엿일를싱각호여스몸을술너췌오(3張 앞)

그러나 그는 놀부에게서 형제관계라고 하는 엄연한 사실과 함께 그 자신
살아 있는 존재로서의 가치마저 무시당하게 된다. 그런데도 그는 집으로
돌아와 기다리던 아내에게 ‘형님은서울가고아니제시기의그저왓습너그려’ 하
여, 근본적으로 놀부와는 다른 태도와 성격을 엿보게 한다. 할 수 없이 그는
아내와 함께 닥치는 대로 품을 팔아 연명을 해나가지만, 그것만으로는 빈궁을
면할 수 없었다. 결국 흥부는 놀부로 인해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이 쫓겨
난데다가 놀부의 소유지향성과는 대조적인 삶의 존재 양식으로 인해 그의
빈궁은 구조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다음에서 보는

물질적 궁핍을 겪는데도 이를 운명론으로 돌리는 것은 심리적 투사에 의한 자
기합리화에 다름없다.

26) 여기서 치례 사설은 전후 문맥으로 보아 흥부의 신분을 나타내기보다 판소리에
통용되던 일종의 典範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그의 삶의 양식과 관련해서 의미를
부여할 때, 진정한 인간적 결합을 위한 그 나름의 태도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27) 놀부에게 있어 아내의 존재와 역할은 흥부의 경우에 비해 별 의미가 없다.

28) 존재 양식의 결정적인 요소는 변화 혹은 운동의 개념이다.(에리히 프롬, 앞의 책,
p. 45 참조)

것처럼 신념 속에 살고 있다.

안연갓호성인도안빈낙도 호엿고부움의담싯턴부엿이도무정을만나지상이도
엿고신야의뵈가던이윤이도은탕을만나귀히도엿고한신갓호영웅도효년궁곤호
다가한나라원용도여시니엿지아니거룩호노우리도마음만을케먹고되는지를기
다려봄세(5張 앞)

여기서 ‘마음을 옳게 먹고 되는 때를 기다려보자’고 한 것은 인간의 참본성 혹은 자기 동일성을 지켜야 한다.²⁹⁾는 것이며, 아울러 인간이 누구나 참본성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확신이며 기대감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핀 대로 작품의 전반부는 결국 두 중심인물의 서로 다른 지향성 혹은 성격구조를 문제삼고 있음이 밝혀졌다. 놀부의 소유 양식은 무제한의 재산을 취득하고 취득한 재산을 유지하기 위한 무제한의 힘 가운데서 행복을 찾는다. 따라서 그것은 권위주의적 사회구조나 부르조아적 개인주의, 비인격화, 지배, 이익, 反理性 등과도 관련되는 부정적 성격이 강하다.³⁰⁾ 그 결과 소유 양식이 지배하는 사회는 불안감과 敵意로 충만한 病的 社會인 것이다. 이에 대해 흥부의 존재 양식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성과 이기심으로부터 떠나 주체와 객체가 서로 살아 있는 관계로 만나며 진정한 결합을 꾀한다. 이에 따라 존재 양식은 인격과 생명, 봉사와 희생, 자유와 평등, 무산계급, 공동체, 비판적 理性과도 관련된다. 한편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이 함께 인간본성에 있어서의 잠재성이란 점에서,³¹⁾ 각기 본능적 자아와 도덕적 자아라고 하는 인간의 양면성에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多樣性이 바로 「흥부전」의 생명력이며, 그 속에 역사적 숨羲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요컨대 전반부는 삶의 소유 양식이 여러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긍정적인 존재 양식에 대해 지배적인 권위를 누리고 있는 구조적 모순

29) 존재의 또 하나의 형태는 보이는 것(appearing)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서, 거짓된 外觀과는 대조적으로 사람 혹은 물건의 참 본성, 참 현실에 언급하는 것이다. (에리히 프롬, 앞의 책, p. 44)

30) 소유 양식에 따른 행동을 佛陀는 갈망(craving),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탐욕(coveting)이라 함.(에리히 프롬, 앞의 책, p. 113)

31) 에리히 프롬, 앞의 책, p. 144.

혹은 價値 顛倒現狀을 현실 논리에 입각해서 보여준 것으로 이해된다.

4. 제비 황제의 기능적 의미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작품의 전반부는 놀부와 흥부에 대한 대조적이고 대립적인 형상화를 통해 서로 상이한 삶의 양식을 보여주고, 빈부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그같은 삶의 양식에서 결과된 구조적 산물로서 제시한다. 이것이 현실의 논리이다. 이에 대해 작품 후반부의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보다도 전반부에서 이룩된 인물의 역학관계나 상황이 역전되고 있다는 점이다. 흥부의 두 발목이 부러진 제비 새끼를 구해 준 일 때문에 제비황제가 등장해서 사건 전개에 직접 개입하고, 報恩朴을 통해 현실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흥부에게 막대한 富를 선물한다. 그러나 놀부는 제비 새끼의 다리를 부러뜨린 일로 인해 제비황제의 報讐朴을 받고 마침내 패가망신에 이른다. 이같은 작품의 후반부는 전반부와 유기적인 관계에서 어떠한 의미를 띠게 되는가 살펴보자.

먼저 제비황제의 보은박은 결코 제비 새끼를 구해 준 단일한 사건 하나만으로 한정해서 그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후반부를 따로 떼어 놓았을 때는 제비황제의 보은박과 흥부의 그같은 단일한 사건이 직접적인 관계에 놓여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작품 전체를 유기적인 관계로 살피고 전반부와 후반부를 상호 일관된 맥락에서 파악코자 할 때, 흥부의 이른바 ‘선행’은 단순하고 우연한 것일 수 없고, 앞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처럼, 살아 있는 것끼리의 진정한 결합을 통한 인간 중심의 사회를 지향하는 흥부의 세계에 대한 태도에 필연적으로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일관성을 띠게 된다.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흥부의 믿음은 철저하다.

고티광실만컨마는슈슈티집의와서네집을지여다가오육월중마의털섞문어지
면그아니낭피오냐(5張 뒤)

흥악하다져짐심이고량도만컨만은무죄호저식기를물식하니악축하다……풍
스망의티망인가머리도흥악하다(5張 뒤)

이와 같은 생명 존중 내지는 세계와의 진정한 결합을 지향하는 흥부의 존재 양식에서 이른바 ‘선행’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제비황제의 보은박은 삶의 존재 양식에 기인하는 생명 존중 사상에 대한 응분의 보상일 뿐 아니라, 또한 생명있는 것들의, 세상을 살아가는 마땅한 도리이자 태도의 표현이다. 그리하여 제비황제는 ‘그런은공을물너서는힘세치못홀금쉬라네박시를갓닷주고은혜를갑호라(12張 앞)’고 하여, 禽獸에게도 行世하기 위한 규범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흥부와 그 아내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는 박을 켜는 과정에서도 엿볼 수 있다. 결국 물질은 그들의 중심적인 사고와 지향성의 밖에 놓여 있다고 할 것이다.

호통을뜨서속은란지저먹고박은지는파라다가술을파라다가밥을지여복시(7
張 뒤)

우리집악계비관호줄알고약스라오리업고아직호힘생르기는밤만못하외(7張
뒤)

한편 놀부와 報讐朴의 관계를 살펴보자.

놀부는 흥부가 잘 살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우선 그를 욱박질러³²⁾ 절반 재산이라도 차지할 욕심을 가진다.

이놈은네거시너거시오너거시너거시오네계집이너계집이오너계집이너계집
이라(9張 앞)

그리하여 놀부의 의도적인 모방 행위는 근원적으로 자신의 물질에 대한 소유지향성에 기인한다. 따라서 그는 세계에 대해 생명의 존엄성이나 살아 있는 것과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흥부에게서 제비의 존재는 생명의 존엄성이었으나 놀부에게 있어서는 단진 富를 소유하기 위한 수단일 따름

32) 놀부가 됴으로 설정된 주요 이유는 소유 양식에서 필요로 하는 힘 또는 권위와 관련시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흥부는 자신이 富者된 사정을 놀부에게 알려 주고 놀부가 달라는 袴과 화초장을 주는 등의 행위에서도, 共有하고 주는 일에서 행복을 찾는 존재 양식의 일면을 볼 수 있다.

이다. 그러므로 흥부와 제비의 관계는 살아 있는 것과 살아 있는 것의 진정한 결합이었음에 반해, 놀부와 제비의 그것은 파괴와 죽음의 관계였다.

강남서낙은제비엿집을츠지랴고오락가락넘겨고놀뵈스면의제비집을지어
노코제비를드리모니그쭈팔즈스오나온제비호늑이놀부집의흙을무리집을짓고
알을노으러호제놀부늑이쥬야로제비집얹히되령호여각금각금만저본죽알이다
골고다만호늑호세야는지라날기공부힘쓰랄제구렁비늑이아니오니놀부민망담
담호여제손으로제비깃기를줍으려쳐돌발목을죽근부리뜨리고제가쑈죽놀나
이른말이가련호다이제비아(10張 앞)

그러므로 제비황제의 報讐朴은 놀부의 소유지향성, 물질적 탐욕에 대한 懲罰의 성격을 띤다.

이늑이제전담지물이유여호되동기를모르고오륜의버셔늑을그져두지못호
거시오쓰호네원슈를갑호주리라(10張 뒤)

그러나 놀부는 이같은 사실을 알 리 없고, 박을 통한 부의 소유에만 집착한다. 그는 부자로 만족치 않고 長者가 되어 부의 대표적 상징인 石崇을 능가하려는 욕망, 그리고 그같은 부의 소유로 皇帝도 부르워하지 않겠다는 철저하게 물질 중심의 가치관을 지닌 인물이다.

흥부는세통을가지고부즈도여시나나는중주되리로다석숨을힝낭의넛코네황
데를브러호기아들엿다(10張 뒤)

이러한 내용은 이미 작품의 전반부에서 구체적 형상화를 통해 드러난 그의 물질 지향적 소유 양식으로 보아 그만큼 설득력을 지니는 것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놀부는 생명의 존엄성까지 말살하면서 부를 추구했지만 끝내 죽음이나 다를 바 없는 철저한 패배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삶의 소유 양식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있다. 즉 샅군을 얻어 켜기 시작한 박속에서는 뜻밖에도 그의 소유 지향성에 정면으로 대립되는 한때의 가얏고쟁이가 나와 풍류를 즐기는가 하면,³³⁾ 또 무수한 노승이 나와 施主를 요구한다. 만약 놀부가

33) 다음과 같은 반어적 표현을 통해서 제비황제에 의한 응징의 성격이 놀부의 삶의 양식에 대한 것임을 잘 알 수 있다고 본다. '우리놀부인심이조코풍뉴를조와호다 호기의놀고갑세'(11張 앞)

어느 정도 이성을 가지고 아내의 만류에 따랐더라면³⁴⁾, 여기서 더 큰 불행은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물질만이 절대적 가치이며 삶의 유일한 목표이자 의미였다. 그러한 신념은 소유의 양식에 있어서는 아무런 합리적인 증명도 없이 확실성을 제공해 준다.³⁵⁾ 따라서 그것은 극도의 자기 중심주의 또는 자아의 속박과 같은 偏執症을 보이며, 변화와 갱신, 생산성과 운동의 개념을 거부한다. 이 때문에 아내에 대한 그의 관계 또한 이미 죽은 관계이다. 그 결과 늘부는 차례로 상제, 무당, 등집꾼, 초라니, 양반³⁶⁾에 이어, 다시 사당거사, 왈자, 車騎將軍, 소경에게 전재산을 빼앗긴 것은 물론, 생급살을 맞고 끝내는 미쳐서 동줄기에 집을 쫓겨나 흥부의 집으로 향하게 된다. 요컨대 富에 대한 극도의 탐욕이 도리어 富를 잃게 한다는 역설적 내용을 報讐朴은 보여 준 것이다.

이와 같이 늘부의 결정적인 패배와 흥부의 승리는 제비황제의 권위로 가능한 초월적인 논리이다. 그리하여 작품의 후반부는 앞서 전반부에서 이룩된 늘부의 부와 흥부의 가난을 역전시켜 마침내 현실의 논리를 부정하고 초월의 논리를 적극 긍정하는 방향에서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 전개에 있어 주동적 인물이 제비황제인 바, 그는 세속적 권위로서의 늘부의 물질 지향성, 즉 소유 양식을 철저히 응징하고, 반대로 인간 중심 사회를 지향하는 흥부의 존재 양식에 대해 보상한다는 기능과 의미를 지닌다.

결국 초월적 논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후반부의 사건 전개는 과도한 소유지 형성에 의해 힘과 권위와 탐욕으로 소유하고 지배하는 사회가 아닌,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이해하며 함께 共有하는 인간 중심의 사회에 대한

34) 늘부의 아내는 ‘제발덕분켜지마오그박을켜다가는똥가망신홀거시니덕분의마오’ (11張 앞)라고 하여 말렸으나, 늘부는 ‘소스호겨집년이무슴일를알라방정마지날 썩는가’(11張 앞)라고 하였다.

35) 에리히 프롬, 앞의 책, p. 67.

36) 여기서 贖良의 문제는 늘부 아내와 늘부 사이의 대화에서 짐작되듯이 소유 양식에서 지배적 주제가 되는 돈, 명성, 힘에 대한 늘부의 탐욕과 관련된다고 보여진다. ‘익고익고원슈의박일니난되업승승전니라고곡결업는속량은무슴일고이만 낭돈을일홍업시풀슈업시니노의못홀노릇그만호오’ ‘에라이년물너거라또일이틀니 겐다이번의드린거선앗감지오니호다승전을두고야살슈있나냐종용호판의오난듯모 르는듯잘터어부렸다’(14張 앞)

집단적 願望의 형상화라 할 것이다.³⁷⁾

5. 결 론

일반적으로 「홍부전」은 인물의 창조와 그 형상화에 성공한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접근방법에 있어 단순하고 단일한 개념으로는 작품 문면에 나타난 제반 사항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없으며, 또한 일면적 이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이, 앞서 주요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에서 충분히 밝혀졌다.

이에 본고는 작품 전면에서 지속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로 크게 부각되어 있는 物質 또는 貧富에 대해 두 중심 인물이 각기 보여주는 태도를 중심으로, 먼저 그들의 대립적 성격을 규명하고, 이어 제비 황제의 역할과 기능을 통해 작품의 중심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홍부전」은 한 마디로 두 중심인물을 통해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본적인 삶의 양식을 보여 주고, 아울러 삶의 존재 양식에 대한 집단적 願望을 표현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유와 존재는 함께 인간 본성에 있어서의 잠재성이며, 그 차이는 요컨대 물질 중심 사회와 인간 중심 사회의 그것에 해당한다.

먼저 놀부의 경우, 세계와의 관계가 살아 있는 인간을 배제하고 다만 재산과 이익을 중심으로 빼앗고 죽이고 占有하는 관계로서의 물질 지향적 소유양식을 나타낸다. 그것은 다시 권위주의적 사회구조와 부르조아적 개인주의 및 비인격화, 지배, 이익, 反理性, 탐욕, 본능적 자아 등과 관련되어 부정적 성격이 강하며, 그로 인해 소유 양식이 지배하는 사회는 불안감과 敵意로 가득찬 病的 社會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홍부는 자기중심성과 이기

37) 에리히 프롬(앞의 책, p. 179-180)에 의하면, 존재 양식은 지금, 여기(hic et nunc)에만 존재하는 데 대해, 소유 양식은 과거 속에 존재하며 과거에 축적된 것에 속박된다. 이에 따르면 존재 양식은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추구해야 할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고, 또 놀부가 뉘므로, 홍부가 아우로 설정된 것이 그만큼 합리적인 것이 되고 있다.

심으로부터 떠나 다른 사람과의 진정한 결합을 통해 사랑하고 共有하며 주는 일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존재 양식의 인물이다. 존재 양식은 자유와 평등, 이성적 비판을 전제로 하며, 인격, 생명, 봉사, 무산계급, 공동체, 도덕적 자아 등 긍정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놀부의 부정적인 소유 양식이 지배적 권위를 행사하고 있다. 이같은 구조적 모순 혹은 가치 전도 현상을 현실 논리에 입각해서 보여주려는 것이 전반부의 의도이다.

이에 대해 후반부를 통한 놀부의 결정적인 패배와 흥부의 승리는 계비 황제의 권위로 가능한 초월적인 논리이다. 현실의 논리에 대한 초월적 논리의 결정적 승리, 이는 물질 지향적 소유 양식을 비판하고 인간 중심 사회를 지향하는 집단적 願望의 표현인 것이다.

결국 「흥부전」은 과도한 물질 지향적 소유 양식에 따른 사회의 병리 현상을 비판하고 각기 존재 양식으로 돌아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 곧 인간 중심 사회에의 회구를 나타낸 것이다.